



2) 시설계획

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은 장기간 많은 자금이 투자되므로 특히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시설물은 모든 기술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며 경영관리면에서도 그 투자비중이 크다. 기존 시설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렵고 그 결함의 수정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계사건축 내부시설 관리기구정비 등 일체의 시설은 해당 계군이 입사되기 전 최저 2~4주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시설은 양계업의 가장 기초 요건으로 그 시행계획이 정확하여 관리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필자는 건설계획의 차질로 병아리를 받아 놓고 계사가 완공되지 않았거나 관리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당황하는 농가를 흔히 보아 왔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초관리 이전의 계획수립 또는 계획관리에 양계관리인이 주의를 환기해 주기를 바란다.

3) 사육계획

사육계획의 수립과 계획적인 사육관리는 계사 및 부대시설의 이용도를 높혀 준다.

시설에 투자된 고정자산은 전체 투자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수익면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란계에 있어 육추사 수송기간은 입추후 11주령까지, 육성사 수송기간은 11주령부터 22주령까지 수송하는 것이 좋다. 계사소독기간은 육추사와 육성사는 1주간 성계사는 4주간이 좋다.

물론 사정에 따라 육추와 육성기간을 육성사에서 0주령부터 22주령까지 수송하여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육성계사만은 따로 시설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체란양계의 시설면에서 가장 불비된 것은 육성계사가 별도로 없다는 것이다. 육성기간의 발육이 성계사의 산란율 및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와 같이 기초 시행계획은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요건으로 실제 체란계 5,000수(육성계포함 10,000수) 규모의 농장 주요시행계획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주요시행계획 (성계5,000수)

